"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1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22일(음력 9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고운사에 울려 퍼진 위로의 선율 의성 고운사 경내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선율이 잔잔하게 울려 펴졌다. 화마로 스러진 전각과 파손된 기와, 불 탄 범종을 쓰다듬은 피아노 선율은 그 자체가 '위로'였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난 10월 11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위로와 기억 연주회'를 고운사에서 개최했다. 500여 관객이 참여한 이날 연주회는 '영혼을 위한 소나타2'를 주제로 모차르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섬세하면서도 절제된 고요함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의 무대가 펼쳐졌다.
글=신중일 · 사진 제공=의성군

행방 묘연한 도난 불교문화유산 187건

임오경 의원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공개

1986~2015년 신고 사례 집계
553건 중 33.8%가 불교유산
'송광사 진영' 등 보물만 5건
비지정 불교유산 피해 집중
임 의원 "수사전문인력 필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신고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유산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회수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나 관리자에 돌려보내지 못한 유물들의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난 후 돌아오지 못한 국가유산은 553건에 달했다. 국가지정유산 유형별로 보면 △국보 1건 △보물 10건 △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2건 △등록문화유산 1건 △사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불교문화유산은 187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의 33.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지정유산 보물은 5건, 사적은 1건, 시도유형유산은 1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난 미회수 보물 중 절반이 불교문화유산이다.

도반 미회수 보물 중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은 '송광사 16국사 진영'이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임을 보여 주는 상징적 성보지만 1995년 1월 27일 국사전 후면 흙벽을 뚫고 침입한 도굴꾼들로 인해 1세·2세·14세 3점의 진영을 제외하고 13점이 전부 도난당했다.

그나마 1세 보조 국사 진영과 제2세 진각 국사 진영은 성보박물관 전시실에 전시 중이었고, 14세 정혜 국사 진영은 충균 피해로 수장고에 보존 관리 중이어서 해를 면할 수 있었다.

도난 이후 송광사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경찰 등은 13점의 진영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직 그 행적이 묘연하다. 2010년에는 송광사와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인터폴에 등록해 국제적으로 수사망을 넓혔으나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1989년 4월 보물로 지정됐으나 그해 12월 도난당한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도 있다. 전문 털이범들은 1989년 12월 11일 늦은 밤 불상이 봉안된 극락전의 창호지를 뚫어 문고리를 푼 다음 불상을 훔쳤는데, 30여 년이 지난 기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외의 보물들은 주로 부재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은 보주가,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감지은니묘법연화경·감지금니묘법연화경)이 도난당했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상륜부 보륜·보주 역시 전문 털이범들이 훔쳐 갔으며, 사적 남원 창림사지 내 석탑재들도 사라졌다.

도난 국가유산들 대부분이 비지정 문화유산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체 도난 미회수 유산 중 90% 정도가 국가 및 시도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비지정 문화유산이었으며, 불교유산 역시 187건 중 167건(89.3%)이 비지정 성보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며 보호범위를 비지정문화유산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난 예방 시스템 구축·운영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도난 문화유산 회수율을 끌어올릴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이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도 기관을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이 사건을 맡으며, 필요 시 경찰과 공조한다.

임 의원은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내 전문 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난 문화유산 연구를 지속해 온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수사 전문 인력 확충과 더불어 도난 유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난 문화유산 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도난 유산의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은밀히 수장(收藏)하거나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아예 소실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도난 유산 소유자가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한시적 양성화 정책 등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교 편향' 장동혁 "부족한 점 있어"

10월 4일, 통도사서 합장·삼배
21일 진우 스님 재예방 '주목'



기독교 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4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종정 성파 스님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편향 발언과 관련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치권에서 불교계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고,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당시 합장 대신 목례를 하고 "제 마음을 다해 인사드린 것"이라고 해명해 물의를 빚은 장 대표는 이날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에게 합장으로 인사하고, 종정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삼배로 예를 갖췄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진우 스님을 재차 예방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에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장동혁 대표가 충분한 사과를 전해 왔다. 21일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직접 사과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종회에도 별도 사과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김내영 기자

진종오, 태고종 찾아 유감 표명

16일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진종오 "언급 無…불편엔 유감"



'서울시장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태고종이 지목되게 했던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16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찾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 해당 단체로 태고종을 지목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태고종은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진 의원과 해당 언론의 사과를 촉구했다. 태고종의 거센 비판에 결국 진 의원은 1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태고종 스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은 "저는 기자회견에서 태고종을 언급하지 않았다. 제보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명부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는 정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상진 스님이 "이번 일로 태고종이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 시작이 진 의원의 발언이었던 만큼, 직접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자 진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스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심기가 불편하셨을 것 같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캠페인 | '불교'로 답해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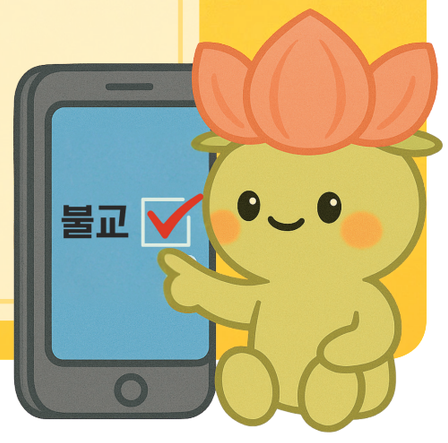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문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조사 예정)

향후 10년간 한국 종교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종교' 문항 조사! 신자들의 적극적인 응답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사찰이 없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불교' 신자임을 알려주세요!